# 지리산 화엄사 정기 받으며 '요가 삼매경'

## 구례 화엄사, 제3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축제

**전국 요가인 500여명 참여해**
**전문 요가강사 강의들 이어져**
**印대사관, 전통춤 '까딱' 선봬**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천년고찰 화엄사의 맑은 기운이 함께 하는 요가 축제가 열렸다.

지리산 대화엄사(주지 덕문)는 6월 10일 대웅전과 각황전, 보제루 앞마당에서 '제3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축제'를 봉행했다.

'화엄, 천년을 세우다' 주제로 개최한 이날 행사는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지난 202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를 맞이했다.

전국에서 모인 500여 요가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행사에서는 인도대사관 인도문화원이 인도 전통춤인 '까딱'을 선보여 요가 참가자와 일반인들의 눈길을 집중시켰다. 이어 대한요가회 요가 시범팀과 국악 연주팀이 함께 맞춘 '요가 콜라보'는 해금과 가야금 등 전통악기와 현대 요가를 접목한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

특별 순서로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지인 선수의 리듬체조 시범 순서는 행사의 백미로 손꼽히기도 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리산이 뿜어내는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요가를 통해 몸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화엄의 뜰에서 새롭게 생동하는 '화엄의 꽃'으로 일체가 함께 피어나는 시간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요가 축제를 통해 코로나의 환란을 극복한 국민들에게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가 전달돼 모두의 가슴속에 지혜가 깃들기를 서원한다"며 "세계평화를 위한 희망의 날갯짓이 곳곳으로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리산 대화엄사는 6월 10일 대웅전과 각황전, 보제루 앞마당에서 '제3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축제'를 봉행했다.

수린더 바가트(Surinder Bhagat) 주한인도대사관 부대사는 축사를 통해 "요가는 심신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고대 인도의 수련법이자 인도의 문화유산"이라며 "정신없이 흘러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요가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고 건강한 신체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전문 요가 사범의 지도에 따라 직접 요가 동작을 체험하고 그 의미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더운 날씨에도 양산과 요가를 접목해 산사에서 아름다운 요가축제가 이어졌다.

2시간 동안 이뤄진 요가축제와 함께 이날 참가자들은 사찰에서 마련한 사찰음식을 먹으며 행사는 성료됐다.

요가대회에는 다양한 계층과 가족 참가자가 많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인근 군부대에서 이날 요가대회 위해 부대에 참가신청을 한 31사단 칠의대대 주은성 상병은 "고찰인 화엄사에서 사범 선생님들의 요가를 따라하면서 '휴식'과 '평안'을 느꼈다. 앞으로 부대에서도 요가를 해보고 싶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3회 지리산 대화엄사 요가대축제는 전라남도, 대한체육회, 구례군체육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전라남도요가회가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구례군, 전라남도체육회, 주한인도대사관, 주한인도문화원, 불교리더스포럼, 대한요가회, UN세계요가의날 한국행사조직위원회가 후원하고 중흥건설, 진주한일병원, 신정종합건설, 프랑스와즈, TS샴푸, 구례약산수, 맑은소리 맑은나라가 협찬했다.

#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태평양전쟁 희생 한국인 영령 천도재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희생된 한국인 2170위 영령에 대한 천도재가 경남 양산 불광사 대법당에서 봉행됐다.

6월 13일 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양산 불광사가 주관하고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가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전쟁한국인 희생자 영령 천도재는 월인 대종사를 증명 대법주, 청봉 대종사를 법주, 종정협의회 각 종단 종정스님을 증명으로 봉행됐다.<사진>

이날 행사를 주관한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은 "2019년도까지는 부산 금정구 시립 영락 공원내에 있는 태평양전쟁 위령비 앞에서 천도재를 봉행해왔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희생자 영령 위패를 불광사로 봉안해와 천도재를 25년동안 봉행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일으킨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2만여 명의 한국인 희생자 발생했다. 이들이 서방극락정토로 천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장 월인 스님은 추도법문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언젠가는 없음으로 돌아가는 무상의 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는 군국주의 국가의 무모한 야욕으로 희생당한 호국영령님들은 오온이 공함의 이치를 자각하고 피안의 열반정도에서 열반락을 누리기 바란다"고 설했다.

(사)대한불교교종 종정 월성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세상을 정화하고 자비와 평화로써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우리 불교지도자들의 사명과 책임"이라며 "전쟁 없는 세계평화를 위하여 항상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는 염원과 기도로써 정진하자"고 말했다.

천도재 후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오는 음력 10월 중 대종사와 명사 품수식을 봉행할 것을 결의했다. 또 종정협의회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전의 청사에 교육기관을 개설할 것을 결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근현대 대강백 백운당 지흥 스님 추모다례재

**6월 15일 담양 용흥사서 봉행**
**진우스님 "종단 미래위해 정진"**

근현대 한국불교의 대강백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은사인 백운당 지흥 대강백(1934~2020)의 3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6월 15일 전남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 대웅전에서 봉행된 추모 다례재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등 종단과 교구본사 주지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종단 중앙종무직 부장스님과 백양사, 범어사 문도스님 등 300여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조사를 통해 "스승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을 능가하는 제자가 나오는 것"이라며 "제자인 진우 스님의 종단 총무원장 소임으로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것이 '청출어람'의 기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큰스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경애한다"고 말했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도 "지흥 대강백께서 남겨주신 가르침은 여전히 밝은 등불이 되어 후학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고 계시다. 종단의 정화이념을 실천하셨든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여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여러 후학들이 종단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큰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정법안장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6월 15일 전남 담양 용흥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근현대 불교 대강백인 백운당 지흥 스님 3주기 추모 다례재.

문도를 대표해 진우 스님은 "지금 불교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포교에 달려있고, 종단과 불교의 미래를 위해 전법에 매진하여 정진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백운당 지흥 대강백은 1934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44년 석산대종사를 은사로 백양사에서 출가했다. 광주서중과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1952년 범어사에서 동산 대종사의 상좌(上佐)로 입실했다.

동산 대종사의 시자(侍者)로 3년간 시봉하며 범어사 강원과 통도사 강원에서 수학했다. 이후 스님은 여러 강원에서 후학을 가르쳤다. 1971~77년 화엄사 강주로, 1977~79년에는 범어사 강주를 지냈다. 1980년 송광사에 강원을 개설했고, 1982~88년 범어사 강주로 후학을 양성했다. 스님은 생전 저술 활동에도 매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왜곡된 가야사 복원 방안 살피다

## 가야불교진흥원 제8회 가야문화진흥학술대회

왜곡된 가야사를 바로잡고 가야불교사를 정립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도명, 여여정사 주지)은 6월 11일 김해문화원 대강당에서 제8차 가야문화진흥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복기대 인하대 대학원 융합고고학 교수의 '헝클어진 가야사' 주제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이후 SATI INSTITUTE 수석연구원 붓다빠라 스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주제발표에는 △허황후는 만들어진 신화인가(김명옥 교수, 건국대), △弁(곳갈) 가야와 불교(문광희 교수, 동의대) △수로왕과 가야불교의 시작에 관한 고찰(지원스님, 가야불교연구소) 등이 발표됐다. 토론은 이동주 교수(동아대)와 인해 스님(통도사 승가대학장), 김용준 교수(고려대)가 참여했다.

복기대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가야사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을 6가지로 정리하고, 가야사 복원에 대해 △〈삼국유사〉를 참고해 가야사 정리 △가야와 임나를 구분 △자연환경과 교역 측면을 고려 등을 제안했다.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과 다른 독특한 문화를 향유한 문화강국 가야를 말할 때 가야불교를 제외하고 말하기 어렵다. 가야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가 해를 거듭해옴에 따라 가야와 인도의 교류 가능성은 물론 가야불교의 역사성은 더욱 선명해졌다"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야문화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마음으로 연구하고 탐색해나가고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신선한 연구와 토론들이 가야문화의 복원을 한걸음 앞당기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자비명상, 불교역사 제자리찾기에 힘보태

(사)자비명상총동문회 전법결사(이사장 마가)가 6월 15일 안성 굴암사에서 '불교역사제자리찾기운동본부(이하 불제본) 후원 전달식'을 개최하고 본부장 송탁 스님에게 259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은 광화문 일대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카톨릭의 성지화 조성 사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교 왜곡을 바로 잡고자 애쓰는 불제본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탁 스님은 5월 31일 진행된 (사)자비명상총동문회 전법결사 특별수행에서 강의를 통해 주어사와 천진암, 광화문 일대, 해미읍성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톨릭 성지화 조성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에 대응방향을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회원들간에 모연이 진행됐다.

자비명상은 이사장 마가 스님은 "불교가 왜곡돼 가는 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 완도 신흥사 삼층석탑 봉안

완도 대표사찰인 신흥사(주지 법공)에 삼층석탑이 세워졌다.<사진>

6월 11일 신흥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2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신흥사 삼층석탑 점안식과 기념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점안한 삼층석탑은 김동교 신도회장의 원력과 신도들이 마음을 모아 2022년부터 석등 1개와 3층석탑을 조성해 이날 완공했다.

법요식에는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과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 신흥사 주지 법공 스님 등 백양사 문도스님들과 김동교 신도회장,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등이 참여했다.



일수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백양사의 팔층석탑과 신흥사 3층석탑은 서로 연결돼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이 석탑을 통해 신도들이 수행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거제 계룡사 대웅전 복원 기공식

지난 1월 3일 취객의 어처구니 없는 방화로 소실된 거제 계룡사 대웅전 복원 기공식이 봉행됐다.

거제 계룡사(주지 선암)는 6월 11일 거제 계룡사 대웅전터에서 대웅전 복원 신축공사 기공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대웅전 복원 기공식에는 계룡사 주지 선암 스님, 현근 스님, 청계사 선공 스님, 금강사 성원 스님, 신광사 선안 스님, 서일준 국회의원, 박종우 거제시장, 윤부원 거제의회의장, 윤성원 신도회장, 하요종 재가불자회장, 김국년 거제불교청년회장을 비롯한 불자들이 참석했다.



새로 신축되는 대웅전은 총 공사비 25억원의 예산으로 목조 외 7포 내 11포의 3칸 팔작 기와지붕으로 48평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마이산 탑사,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금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마이산 탑사 주지)가 진안지역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일천만 원을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전달했다. 또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은 사랑의 돼지 저금통 50개를 함께 전달했다.<사진>

6월 15일 진안군청(군수 전춘성)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진안사랑장학회 인재양성 장학금 전달식에는 진성 스님,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갑룡장학회에서 전달한 장학금은 2021년 진안사랑장학회(이사장 전춘성)와 마이산탑사가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1000만 원, 총 5000만 원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이날 3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진성 스님은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장학금이 지역 인재 육성의 초석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사)한국불교종정협의회' 창립

(사)한국불교종정협의회(초대회장 법정)가 창립됐다.

(사)한국불교종정협의회는 6월 11일 대구 동구 성낙사 대법당에서 창립 및 초대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근본조계종, 한국불교선조계종 등 7개 종단 종정들이 모여 협의회를 창립한 것이다. <사진>

이날 창립법회는 대한불교법인종 종정 예전 스님의 개회선언에 이어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헌화 및 헌향, 경과보고, 초대회장 대관식 및 법어 순서로 봉행됐다.



초대회장 법정 스님은 법어를 통하여 "큰 꿈을 품고 힘차게 출범하는 뜻깊은 날이다.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을 간절히 기원하는 초심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오롯이 붙들어 항상 변함없이 정진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배철완 대구경북지사장

# 광주BBS 사장에 김대원 광주라마다 회장



광주BBS 신임 사장에 김대원 광주라마다호텔 회장<사진>이 임명됐다.

재단법인 BBS 불교방송은 BBS광주불교방송 제3대 사장에 김대원 라마다플라자 광주·충장호텔 회장(사진)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대원 사장은 앞서 BBS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사장으로 추천됐다.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졸업한 김 신임 사장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자문위원, 광주관광재단 이사,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관광협회 이사,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수석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사장은 앞서 지난달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으로도 추대됐다.

김대원 신임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겸 광주불교방송 사장은 "광주불교방송의 설립목적과 방송이념에 맞게 초발심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광주불교계의 숙원인 불교회관 건립불사를 완수해 광주불교방송을 불교회관으로 이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원 사장의 임기는 2023년 6월 8일부터 2027년 6월 7일까지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